

케인즈와 슘페터 — 그 學問과 思想의 比較 —

趙 淳*

次

- I. 序 言
- II. 學問의 基本性格
——道德科學과 社會科學
- III. 經濟理論
- IV. 價值觀 및 社會哲學
- V. 結 語

I. 序 言

本稿의 目的은 케인즈와 슘페터의 經濟理論과 思想의 몇 가지 共通點과 差異點을 比較하는 데 있다. 이 兩大學者의 龍大한 業績의 全般에 걸친 比較는 本稿의 範圍와 筆者の 能力を 크게 凌駕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理論이나 思想의 比較의 瑣末의in 부분은 割愛하고, 어디까지나 現時的 觀點에서, 또 우리나라의 學界의 視角에서, 우리에게 示唆를 주고 興味를 鼓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點에 限하여 重點的으로 論及하고자 한다.

이 일에 당하여, 나는 巨象의 牒의 各 部分을 만져 본 盲人們의 寓話を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같은 淩學이 이 世紀의 兩大家를 比較한다는 것은, 여섯 盲人보다도 더 無謀한 試圖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自覺이 앞서는 것이다. 하물며 내가 더듬어야 하는 對象은 一巨象에 一巨鯨이 追加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巨象과 巨鯨은 이들 族屬 中에서 白眉的인 存在이며, 一世紀에 한 번씩 나타나는 白象과 白鯨이니, 比較者의 力不足은 더욱 切實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能力不足을 切感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作業을 試圖하는 理由는 平素에 이 兩大家의 著作을 教訓의 源泉으로 여겨 온 一後學의 立場에서 中間段階에서 나마 이들에 대한 나의 理解의 一端을 整理해 보고자 함에 있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케인즈와 슘페터의生涯와業績에는 거의共通點이 없다. 兩人이 서로 同甲이었고, 다른經濟學者였다는點, 그리고 비교적短命이었다는點 등의偶然한類似點밖에 없는 것이다. 타고 난天稟과性格도 매우 달랐고,家庭環境과青少年時節의教育過程에도 거의共通點이 없다. 그들을 길러낸知的霧圍氣도 크게 달랐고, 그들이 각각 지니게 된歷史觀,人間觀,社會觀도兩極을 이룬다. 兩人の經濟理論의背景,政策에 대한關心 등에도 큰差異가 있었다. 資本主義에 대한그들의비전과그命運에 대한그들의展望에도共通性은 거의 없다. 後學에 대한態度도 달랐고, 심지어그들이 서로를意識한內容과深度에 있어서도兩人사이의差異는현저하다. 다만그들의理論과思想에는오직偉大한것만이가지는比較可能한對照點은많다. 이러한點이本稿의內容을이룰것이다.

II. 學問의 基本性格——道德科學과 社會科學

무릇 어떤理論이나思想은,問題의意識 없이는胚胎될 수가 없다. 케인즈가意識한問題는抽象的인理論上의問題가 아니라, 언제나英國經濟가當面한現實的問題였다. 이러한問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既存의觀念이나理論은 그에게는 항상非現實의이고 너무나 많은缺陷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보다現實에 맞는理論과解決策을提示하기 위하여獨自의인理論과方向을摸索하게 된 것이다.

그의生涯를概觀해 보면 그는一生을통하여 네 가지의問題에直面하였으며, 그의經濟理論은 이 네 가지 문제를 解決하기 위한分析 및 說得의道具로展開되었다.⁽¹⁾ 첫째는 1次大戰 이후의獨逸의賠償問題인데, 이에 대한 그의理論은『平和의經濟的歸結』(1919년) 및『條約改正案』(1923年) 등에 의하여提示되었다. 둘째는 1次大戰 후 金本位制度의處理를 포함하는金融改革의問題인데『貨幣改革論』(1923年),『처칠씨의經濟的歸結』(1925年) 및部分적으로는『貨幣論』(1930年)⁽²⁾ 등이主로이問題를取扱하고 있다. 세째는(主로英國의)失業의問題인데,周知하는바와같이이른바「케인즈革命」이라는理論上の革新은主로이問題를다루는過程에서成就되었다. 數 많은小冊字와論說 및 그리고『雇傭, 利子 및 貨幣의一般理論』(1936年)이 이問題에관한理論과解決策을摸索하고 있다. 『一般理論』도 결코理論을위한理論은아니고現實問題의解決을위한武器·彈藥으로서의性

(1) 이 점에 관하여는趙淳,『J.M. 케인즈』(經濟學全集一古典篇),裕豐出版社, 1982, pp. 81-83 參照.

(2)『貨幣論』은 그의一生 동안의 가장學究의인(academic)著述이라고는하나, 여기에서도貨幣制度·金本位復歸 이후의善後策 등의論議가 그의主要政策의關心事임이나타나고있다.

格이 強하며, 무엇보다도 「說得」을 위한 著作이었다는 點에서 다른 著作과 다를 바 없다. 네째의 問題는 2次大戰의 戰爭遂行에 隨伴하는 經濟問題 및 大戰 이후의 國際通貨秩序의 確立에 관한 問題였다. 이에 대하여는 『戰費調達論』(1940年) 및 이른바 決濟同盟(Clearing Union)에 관한 案(『케인즈全集』第25卷 收錄)이 있다. 사실 그의 生涯는, 1次大戰의 終末期로부터 2次大戰의 終末期에 이르는 英國資本主義 歷史上 가장 複雜多難한 時代에 接踵한 數 많은 問題를 解決하는 데 投入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問題에 대하여 항상 獨自의이고 現實的인 見地에서 解決策을 摸索하기 위하여 언제나 全力 投球한 經濟學者는 古今을 통하여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³⁾

그의 業績을 概觀해 보면 『一般理論』까지의 著作에는 아직 케인즈理論이라고 할 만한 體系의이고 外形的인(formal) 構造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一般理論』에 와서 비로소 이것이 形成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좀 더 넓은 見地로 본다면 그의 理論은 『一般理論』의 前後를 莫論하고 항상, 歷史와 社會科學, 哲學을 包括하는 보이지 않는 「體系」 위에 立脚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비록 「英國」과 「英國社會」가 항상 念頭에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島國的인」 視野가 드러나기도 하였으나,⁽⁴⁾ 그의 體系는 단순한 形式的인 論理를 위주로 하는 經濟理論의 體系가 아니라, 人間性, 人間本體 등에 대한 哲學的 認識과 歷史와 社會에 대한 理解에 基礎를 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論理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統一된 體系가 없는 것도 같고, 때로는 矛盾되는 것도 내包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자세하게 檢討해 보면, 겉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冰山의一角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것은 그 基礎가 넓고 堅固한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體系 위에 서 있다는 것을 切感하게 된다.

이러한 體系를 道德科學(moral science)의 體系라 한다. 「道德科學」이란 어떤 秩序整然한 科學의 一部門은 아니다. 그것은 自然科學의 「自然」에 대한 人間 및 人間이構成하는 「社會」에 관련된 諸學問分野의 總稱이다. 道德科學의 性格을 무엇보다도 잘 나타낸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드, 흄, 로크, J.S. 밀 등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自然과는 달리, 人間性(즉 모랄)의 領域의 獨自性을 認識하고 人間知性論, 人間本體論 등의 人間學의 見地에 서서 社會現象을 보고 政策을 세우고자 하는 接近方法을 取한다. 이들이 考察하는 方法은 모두 機械的인 方法이 아니라, 歷史, 傳統, 慣習, 經驗의 調和되는 方法이다. 케인즈는 經濟學을, 「理論과 實際, 直觀的 想像力과 實踐的 判断力의 人間知力에 마

(3) 물론 그의 著作 中에는 이들의 問題와 直接的으로 관련이 없는 것도 많다. 이를테면 『印度의 貨幣과 金融』(1913年), 『確率論』(1921年), 『人物評傳』(1933年) 등의 龐大한 著作이 있다.

(4) 습페더는 케인즈의 視野에는 島國的인(insular) 面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John Maynard Keynes," in *Ten Great Economists*,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274 참조.

을 편하게 融和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의 뜻에 가장 適合한 道德科學의 一部門」⁽⁵⁾이라고 했다. 그는 그의 爰弟子인 해로드에 준 書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로빈스가 말한 것과는 反對로, 經濟學은 本質的으로 道德科學(moral science)이지 自然科學은 아니다. 즉, 經濟學은 省察(introspection)과 價值判斷을 採擇하는 것이다.」⁽⁶⁾

「나는 經濟學이 道德科學이라는 點을 力點을 두어 強調하고자(emphasize strongly) 한다. … 經濟學은 動機, 期待, 心理的 不確實性을 取扱하는 것이다. 우리는 素材가 不變이고 同質的인 것으로 取扱하는 일이 없도록 不斷히 注意하여야 한다.」⁽⁷⁾

사실 케인즈는 以上의 그의 말이 含蓄하고 있듯이, 嚴格한 의미에 있어서의 ——즉 道德科學의 見地를 떠난——經濟理論의 可能性에 대하여 懷疑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不確實性, 不合理性, 不可逆性——後述 參照——등에 의하여 特徵지워지는 人間社會를, 自然科學의으로 分析하고자 하는 것을 그는 사실상 斷念하고 있었고, 따라서 비교적 因果關係가 확실한 短期의 경우에 限하여 擬似科學의인 分析이 合當하다고 생각하였다.⁽⁸⁾ 이러한 態度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洞察力에 넘친 슘페터의 케인즈評이 있다는 것을 想起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經濟學의 純粹한 知의인 可能性(傍點 筆者)에 대하여는 별로 높은 評價를 하지 않았다. 그는 높은 標高의 空氣를 吸入하고자 했을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經濟學의] 純粹理論으로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었다. 그는 一種의 哲學者이며 認識論者였다.」⁽⁹⁾

그의 哲學이나 認識論에 대한 獨立된 著作은 드물다.⁽¹⁰⁾ 케인즈의 哲學과 認識論은 그의 全著作을 통하여 窺知될 수 있는 것이며, 體系化된 것은 아니다. 大略적으로 말한다면, 事物의 本性에 관한 存在論(ontology)에 있어서는 그는 直觀을 중요시하고, 事物을 認識하기 위한 主體的인 根據에 관한 認識論(epistemology)에 있어서는 經驗을 尊重하였으며, 事物의 認識을 表現하는 方法論(methodology)에 있어서는 그는 嚴密한 演繹보다는 歸納을, 그리고 數理的인 說明보다는 自然的인 日常言語를 重視하였던 것이다. 「直觀과 經驗에 適合하지 않은 前提나 論理는 그것이 아무리 洗練된 것일지라도, 그가 容認하는 것은 되지 못하였다.」⁽¹¹⁾ 이것은 사실, 케인즈의 學問의 가장 두드러진 側面이기는 하나, 一般的으로前述한 英國의 道德科學의 大家들에 共通하는 特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人物評傳』(『케인즈全集』第10卷), p. 335.

(6) 『케인즈全集』第14卷, p. 297(1938年 7月 4日字).

(7) 上揭書.

(8) 西部邁, 『ケインズ』(20世紀 思想家文庫 第7卷), 岩波書店, 1983, p. 109 參照.

(9) Schumpeter, *op. cit.*, p. 270.

(10) 後述하는 그의 「少時의 信條」가 드물게 보는 하나의例外이다.

(11) 西部邁, 前揭書, pp. 79-82.

슘페터는 오스트리아學派의 傳統 속에서 자라났고 빌·바베르크에 師事하기도 했으나, 少時 때부터 빌·바베르크를 脫皮하였다. 그는 왈라스에 대하여 모든 讀解를 아끼지 않았으나, 왈라스의 理論도 일찌기 超克하였으며,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偉大한」 學者로 칭찬하였으나, 거의 大部分의 理論領域에 걸쳐, 그와는 反對의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케인즈가 單純한 經濟學者가 아니라, 道德科學者였듯이, 슘페터도 單純한 經濟學者가 아니고 하나의 社會科學者였다. 「社會科學」의 通說의 定義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社會科學者라 함은 經濟現象을 포함하는 社會現象을 研究함에 있어서 自然科學的인 手法을 主로 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現象이 統一的 社會現象의 一部라는 認識을 끝까지 重要視하는 學風을 가지는 學者를 말한다. 모든 社會現象을 하나의 統一的 現象으로 把握하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經濟에 대해서나 社會에 대해서나 항상 그 비전에 立脚하여 事象을 把握하고 分析하고 理解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社會科學者의 學風이다. 슘페터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社會科學者였다. 그의 『經濟發展論』의 첫머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研究方法이 여기서 말하는 社會科學的인 方法임을 말해주고 있다. 「社會事象은 하나의 統一的 現象이다. 그 큰 흐름으로부터 經濟的 事實을 强制로 꺼집어내는 것은 秩序를 세우기 위한 研究者の 手腕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社會科學者로는 마르크스, 베버, 하이에크, 뮐러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弱冠 25歲(1908年)에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이라는 大著를 出刊하여, 왈라스의 靜態均衡論을 中心으로 빌·바베르크, 비저, 다살, J.M. 클라크 등의 學說을 包攝하여 純粹經濟學을 獨創的으로 展開하였고, 28歲(1911年)에는 그의 一生의 代表作으로 評價되는 『經濟發展論』을 著述하여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의 原理를 밝혔다. 著者は 이 책이 經濟發展에 대한 純粹한 經濟理論을 그 内容으로 하고 있다고 強調하고 있으나, 이 책의 分析의 方法은 單純한 몇 개의 經濟變數 간의 函數關係를 形式的な지 機械的으로 展開하는 것이 아니라, 歷史와 社會를 包括하는 視野의 基礎 위에서 經濟發展의 論理를 展開하고 있다는 點에서 社會科學的인 立場에 서 있다. 1939년의 著書『景氣循環論』도, 그 副題가 表示하고 있듯이, 資本主義經濟의 循環의 理論的, 歷史的 및 統計的 解明이며, 經濟에 관한 그의 視野가 社會科學者로서의 視野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晚年(1942年)의 大著『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의 考察對象은 資本主義의 將來와 命運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經濟理論을 넘어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슘페터의 體系는 언제 어디에 있어서나 資本主義의 發展과 그 運行過程 및 그 終末과 命運에 관한 것이다.⁽¹²⁾

(12) 그가 他界하였을 때에 하버드大學의 同僚들이 刊行한 追念論文集의 標題가 *Schumpeter, Social*

그는 上記의 大著 이외에도 社會, 政治, 思想, 哲學 등에 걸친 長大한 量의 著書와 論文을 著述하였다. 上記의 『本質』, 『發展』 및 『循環』은 主로 經濟學系列의 著作⁽¹³⁾이라고 할 수 있는 데 比하여, 社會學系列의 著作으로 『租稅國家의 危機』(1918年), 『帝國主義의 社會學』(1919年) 및 『社會階級의 理論』(1927年) 등이 있다. 『主義』는 經濟學과 社會學, 思想史 및 政治學 등을 集大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示唆한 바와 같이 숨페터의 著作을 읽고 항상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著作은 經濟學系列의 것이나 社會學系列의 것이나 또는 그 밖의 것⁽¹⁴⁾이나, 少時의 著作이나 晚年の 것이나를 莫論하고, 論旨, 視角 및 判斷 등이 항상 一貫되어 있다는 點이다. 이를 테면 『本質』에서 이미 『發展』의 萌芽를 보여 주었고, 『發展』의 論旨는 『循環』 및 『主義』에 그대로 反映되어 있다. 經濟學系列의 視角과 社會學系列의 視角도 그 源流은 항상 같다. 『租稅國家』에서의 資本主義 没落에 관한 그의 비전, 그리고 『帝國主義』에 있어서의 社會階級의 形成과 그 役割에 관한 理論은 그대로 『主義』에 連續된다. 숨페터의 항상 一貫되고 統一된 科學的 視角은 여러 번 理論과 政策勸告——外形에 있어서는 적어도——를 바꾼 케인즈와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이와 같이 케인즈가 英國의인 道德科學者였음에 비하여 숨페터는 大陸의인 社會科學者였다. 兩者는 그 學問과 視野의 幅이 넓다는 點에서는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兩者 間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을 것도 같다. 道德科學者 가운데도 여러가지 類型의 學者가 있고⁽¹⁵⁾ 社會科學者 가운데도 여러가지 類型의 學者가 있기 때문에,⁽¹⁶⁾一律的으로 兩者 間의 差異을 論한다면, 이것은 浅薄하고 無意味한 謬論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兩者 間에는 다음과 같은 共通的인 差異는 있는 것 같다. 前者は 現實과 經驗을 매우 重要視하는 데 比해, 後자는 論理的인 一貫性을 중요시한다.⁽¹⁷⁾ 前者は 政策을 위한 理論을 중요시하는 데 대해, 後자는 論理를 위한 理論을 比較的 중요시한다.⁽¹⁸⁾ 前者は 政策勸告의 現實適合性

Scientist(S.E. Harris, 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經濟學者가 아니라, 社會科學者였음을 浮刻시키고자 한 것이라 해석된다.

(13) 이 系列에 屬하는 著作으로는 『經濟學史』(1914年) 및 『經濟分析의 歷史』(1954年) 등도 있다.

(14) 이를테면 그에게는 케인즈의 『人物評傳』에 比肩할 만한 經濟學者の 評傳 『十大經濟學者』(1965年)가 있다.

(15) 이를테면, 아담 스미드와 J.S. 밀 및 케인즈를 比較해 보라.

(16) 이를테면, 마르크스, 숨페터, 하이에크를 比較해 보라.

(17) 이를테면 숨페터는 케인즈에 比해 理論의 一貫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훨씬 많은 努力を 傾注하였다고 생각된다.

(18) 이를테면 숨페터의 「基準」循環, 「주글리」循環 및 「콘트라티에프」循環 등에 대한 理論은 現實에 立脚한 理論이라기 보다는 論理에 置重한 理論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evance)을 중요시하는 데 비해, 後者는 政策을 念頭에 두는 경우에는 現實과 遙遠함을 介意치 않는다.⁽¹⁹⁾ 前者의 理論과 思想은 多樣하고 그 構造는 때로는 矛盾된 要素를 內包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그리 介意치 않는 데 비해, 後者는 대체로 「一塊岩」의인 (monolithic) 性格을 가지고 있다.⁽²⁰⁾

III. 經濟理論

1. 現實과 動態分析

케인즈와 슘페터는 각각 道德科學者와 社會科學者로서의 包括的인 視野를 가졌다는 面에서 共通點이 發見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比較의 對象을 兩者의 經濟理論으로 좁혀서 볼 때에도, 어느 정도의 共通點을 發見하게 된다. 즉, 케인즈와 슘페터는 經濟을 보고 分析하는 方法에 있어 다 같이 靜態的인 分析을 떠나서 主로 動態的인 側面에 關心을 集中하였다는 點에서 共通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經濟理論은 어디까지나 現實의 經濟, 經驗의 世界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現實의 經濟는 靜態理論에 있어서의 均衡의 世界가 아니라, 不斷히 움직이는 動態的인 經濟이다. 兩學者는 이와 같이 現實의으로 움직이는 經濟를 觀察하고 이에 立脚하여 理論을 爐めた 것이다.

우선 케인즈의 경우를 보자. 『一般理論』 이전의 케인즈에게는 아직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케인즈의 經濟理論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確立되어 있지 못하였으나, 그의 考察의 對象이 된 것은 대부분 現實의 問題였었는데, 이들에 관하여 그는 언제나 나름대로의 獨創의이고 現實의인 理論과 對策方案을 提示하였고 靜態의인 均衡理論의 論理를 그대로 現實에 類推한 적은 없다. 이를테면 1920年代에 있어서도 貨幣數量說을 長期的으로는 옳다고 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展開過程과 그 經濟的 社會的 效果 및 貨幣改革의 方向을 論함에 있어서는, 動態的 政治經濟學의 見地에 섰고(『貨幣改革論』), 그의 著作 가운데서 가장 아카데미한 著書라고 할 수 있는 『貨幣論』에 있어서조차도 그는 그自身的 獨特한 「基本方程式」을 創案하여, 物價變化와 景氣變動의 過程을 說明할 수 있는 用具로 삼고자 試圖하였던 것이다. 항상 現實問題를 念頭에 두고 道德科學의 見地에서 政策方向을 提示하고

(19) 이를테면 「뉴 텔」에 대한 슘페터의 否定의in 態度, 또는 하이에크의 貨幣에 대한 現實과 거의 遊離되어 있는 政策勸告를 想起하라.

(20) 케인즈는 마르크스나 왈라스에 대하여 별로 意識한 적이 없는 데 비해, 슘페터는 兩者를 極口 讀揚한 것은 마르크스와 슘페터의 理論이 「一塊岩」의인 側面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도 理由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자 하는 目的을 가진 그는『一般理論』이전에도 經濟分析의 目的을 動態的인 問題의 理解와 處方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一般理論』이 有效需要의 不足으로 말미암은 不完全雇傭狀態를 解明하는 데에 그 理論의 主眼을 두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一般理論』이 靜態分析이냐 動態分析이냐, 또는 均衡分析이냐 不均衡分析이냐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도 論難의 여지가 있다. 사실 케인즈는 『一般理論』에서 均衡(equilibrium)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의 分析의 對象이 되었던 不完全雇傭의 現實은 그 책에 있어서는 一種의 短期的인 均衡의 상태로 描寫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의 目的是 그「均衡」下에서의 靜態的인 狀況 自體에 대한 分析과 叙述에 둔 것이 아니라, 그 均衡이 어떻게 形成되며, 어떻게 移動하는가에 그의 分析을 集中시켰다는 의미에서, 分析의 內容과 自標는 靜態가 아니라 動態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케인즈의 關必은 架空的인 均衡의 世界가 아니라 不均衡의 現實의 世界였다. 다만 그의 動態分析은 靜態의인 理論의 骨格과 分析用具 및 用語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認定되어도 좋다. 「均衡」이라는 말을 쓰면서 「不均衡」을 說明하는 것이 그의 方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理論을 動態理論이라 부르지는 않았으나 移動均衡(shifting equilibrium)의 理論이라고 부른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그는 古典理論에 있어서처럼 經濟理論을 價值 및 分配理論과 貨幣理論로 兩分할 것이 아니라, 個個의 產業(또는 企業)의 理論과 總生產·總雇傭의 理論으로 兩分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前者를 그는 定常均衡(stationary equilibrium)의 理論이라고 하고 後者를 移動均衡(shifting equilibrium)의 理論이라고 했다(『一般理論』, p. 293). 그는 巨視理論은 곧 貨幣理論이고 貨幣理論은 곧 移動均衡에 관한 理論이라고 한 것이다. 移動均衡이라는 用語 속에 『一般理論』의 關心과 分析方法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다. 즉 그의 關心은 動態에 있고 分析方法과 用語는 靜態理論의 그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資本主義의 發展과 變動을 考察의 對象으로 삼았던 슘페티의 理論이 靜態理論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슘페티의 理論은 하나의 壯大한 動態的 體系이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슘페티의 動態理論도 靜態理論의 基礎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의 動態理論은 「循環的 흐름」으로 描寫되는 靜態的 世界에 있어서의 經濟狀態로부터 시작된다. 그 世界에서의 經濟活動은 모두 本質的으로 反復의이며, 모든 經濟主體는 누구나 다 完全히 잘 알고 있는 慣行에 따라 行動한다. 각 企業은 모두 完全競爭의 均衡狀態에 있으며, 賃金과 地代로 成立되는 企業의 生產費用은 각 企業의 收入과 一致한다. 價格은 어디에 있어

서나 平均費用 및 限界費用과 같다. 利潤은 零이고 利子率도 零이며, 利潤機會는 存在하지 않고, 生產要素의 非自發的 失業은 전혀 存在하지 않는다. 企業과 마찬가지로 家計도 長期均衡狀態에 있어서, 收入은 支出과 같고 貯蓄은 零이다. 이런 均衡의 經濟에는 發展이 있을 수 없다.

이 安穩한 靜態的인 世界에 企業에 의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져서 生產函數가 不連續的으로 變化함으로써 經濟發展에 始動이 걸리게 된다. 슘페터의 理論은 發展을 可能하게 하는 이노베이션의 本質이 무엇이며, 어떻게 發展을 가지고 오며, 무엇이 그것을 實現시키며, 그 結果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分析을 그 內容으로 한다.

이노베이션에 의하여 始動이 걸린 經濟發展은, 投資의 群生과 이로 因한 利潤의 減少 및 消滅의 過程을 겪은 이후에, 다시 均衡——보다 높은 次元——으로 돌아온다. 즉 經濟發展의 過程은 均衡으로부터 出發하여 다시 均衡으로 回歸하는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슘페터의 動態分析은 靜態로부터 시작하고 靜態로 되돌아 오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景氣循環論에 있어서도 靜態理論이 應分의 役割을 遂行한다. 이를테면 景氣循環의 四局面을 理解하는 데 있어서도 靜態理論이 援用된다. 똑 같은 景氣의 「上昇」이라도 均衡狀態까지의 上昇은 回復이고 均衡狀態로부터의 上昇은 好況이 된다. 똑 같은 景氣의 「下降」도 均衡狀態까지의 下降은 後退이고 均衡狀態를 넘어선 下降은 不況이 된다.

이와 같이 經濟發展에 있어서나 景氣循環에 있어서나 靜態的 均衡은 슘페터의 理論의 基礎가 된다. 靜에 대한 理解 없이는 動이 무엇인지 說明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均衡」의 概念은 어디까지나 現實經濟에 대한 理解와 說明을 하기 위한 手段이고, 그의 理論의 目的是 움직이는 資本主義經濟의 發展과 循環에 있다. 말하자면, 슘페터는 「均衡」의 世界의 叙述을 통하여 不均衡을 理解하고, 알라스의 비전을 빌려서 알라스의 均衡을 克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케인즈의 均衡과 슘페터의 均衡은 그 內容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다.⁽²¹⁾ 케인즈의 不均衡은, 經濟主體——個人이건, 企業이건——의 어떤 心理作用의 變化에 의하여 均衡이 扰亂되고 그것이 變化하는 모든 경우를 指稱한다고 볼 수 있는 데 反하여, 슘페터의 均衡이란, 설사 貯蓄이나 純投資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人口가 어느 정도 增加한다고 하더라도, 既存의 觀念이나 既存의 生產函數에 不連

(21) 一般均衡, 部分均衡, 臨時的 均衡, 總體的 均衡 등의 用語가 밀해주고 있듯이, 均衡의 概念에 도 여러 가지가 있다. 以下에서의 解釋은 이들 用語에 拘泥됨이 없이 行하고자 한다.

續의變化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企業者에 의한 이노베이션이 없는 緩漫한 變化라면 그 것은 역시 均衡의 狀態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가 不均衡狀態라고 보는 狀態도 숨페터의 見地로 보면 均衡狀態로 볼 수가 있다. 만약 企業에 의한 이노베이션이 없는 어떤 不完全雇傭의 狀態가 展開되고 있다면 이것은 케인즈의 理論으로 보면 不均衡狀態(내지 移動均衡의 狀態)라 하겠으나, 숨페터의 見地로 보면 그것은 不均衡의 狀態라기 보다는 오히려 均衡의 狀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²⁾ 뚜 같은 理由로 해로드·도마 등의 動態理論도 그것이 生產函數의 變化를 隨伴하는 不連續的인 發展을 가져 오는 理論이 아닌 이상 숨페터의 動態理論은 아니다. 숨페터에 있어서의 動態의 觀念에는 時間이 問題가 아니라, 不連續的인 變動이 問題인 것이다.

2. 經濟의 動因——期待와 이노베이션

「均衡」이라는 機械裝置의 世界를 떠나서 움직이는 現實經濟의 世界로 進入할 때, 經濟學者가 發見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人間이다. 經濟의 動因은 人間에 의하여 賦與되며 따라서 經濟의 움직임을 人間을 떠나서는 把握할 수가 없다.

하기는 靜態理論, 均衡理論에 있어서도 經濟主體는 人間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기서의 人間은 正確한 知識과豫見의 能力を 가지고 唯一의 目標, 즉 效用의 極大化라는 目標를 追求하는 로보트와도 같은 人間이지, 現實世界의 人間은 아니다. 均衡理論에 있어서의 人間은 主觀的인 判斷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직 客觀的인 公準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描寫된다. 거기에서의 經濟主體는 오직 周圍의 狀況에 適應하기 위하여 公準에 의하여 被動的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終着驛인 均衡에 到達하게 된다. 均衡理論에서의 人間은 物理學에 있어서의 原子나 分子와 다름이 없다. 意志도 期待도 動機도 不必要하다. 原子의 人間이 서식하는 고요한 機械裝置의 世界, 그것이 均衡의 世界인 것이다.

케인즈理論에 서식하면서 經濟을 움직이는 人間은 어떤 人間인가?

첫째, 그것은 均衡理論에 있어서의 人間, 즉 어떤 特定한 制度의 背景을 갖지 않는, 그저 機械的으로 效用을 極大化하는 人間은 아니다. 이 理論에서의 人間은, 資本市場이 高度로 發達한 資本主義社會에서, 勞動하고(勞動者) 消費하고(消費者) 投資하고(企業者), 資產을 管理하는(投機者) 人間으로 構成된다. 케인즈理論에 있어서는 單純히 n 個의 經濟主體가 있는 것이 아니라, 勞動者, 消費者, 企業者 및 投機者 등, 각기 그 行動類型을 달리하는 그룹으로 構成되는 經濟主體가 있는 것이다.⁽²³⁾

(22) 특히 이 點에 관하여는『經濟發展論』第1章 附錄 I 參照.

(23) 이것은 마치 古典派理論에 있어서의 經濟主體는 單純히 效用을 極大化하는 人間이 아니라,

둘째, 케인즈理論에 있어서는 人間의 知識, 특히 將來에 대한 知識은 极히 制限되어 있다는 點이 強調된다. 將來는 本質的으로 不確實하다. 누구를 莫論하고 將來의 일을豫見하는 能力은 심히 制限되어 있다. 따라서 將來에 대하여는 人間은 오직 期待를 가질 따름이다. 이 期待에 立脚하여 人間은 將來에 關한 意思決定을 現在에 내려야 한다(不確實性).

將來에 대한 期待는 모두 合理的인 基準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人間의 心理와 行動 자체가 그리 合理的인 것이 못된다(不合理性). 이를테면 企業者는 合理的인 基準에 의하여 形成된 期待에 立脚하여 投資를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野性的인 衝動(animal spirit)」에 의하여 投資를 行한다. 資產管理者가 證券을 買賣함에 있어서도 合理的인 確率計算에 立脚하여 그것을 行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에 있어서의 群衆心理, 過去로부터의 慣性(convention) 등에 의하여 그것을 行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慣習性).

將來에 대한 人間의 期待는 實現되는 경우도 있지만, 失望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단, 意思決定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돌이킬 수는 없다. 이를테면 投資가 시작되면, 投資가 시작되기 前의 狀態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時計 바늘은 오직 한가지 方向으로 밖에 돌지 않듯이 人間의 經濟生活도 오직 未來를 向하여 이루어질 뿐이며, 過去의 狀況이 再演될 수는 없다(不可逆性내지 歷史性).

이와 같이 「不確實性」에 直面하여, 不可逆의in意思決定을 하지 않을 수 없는 人間은, 어떤 合理的인 基準에 의하여 意思決定을 한다기 보다는 慣性이나 經驗 및 野性的 衝動등에 의하여 意思決定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現實經濟는 이와 같은 人間의 意思決定에 의하여 形成되고 움직이는 不均衡의 經濟이다. 이것이 케인즈의 經濟觀의 基本이라 할 수 있다. 이 點에 관하여 J. 로빈슨 女史의 다음과 같은 指摘은 케인즈 經濟學의 本質을 매우 잘 表現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理論의 平面에서는 [케인즈] 革命은 均衡의 觀念으로부터 歷史의 觀點으로의 移行, 合理的 選擇의 原理로부터 推測과 慣性에 立脚한 決定의 問題로의 移行이라는 點에 있었다.」⁽²⁴⁾

「일단 經濟가 時間 속에 있고, 歷史가 不可逆의in過去로부터 未知의 未來로 向하여 一方向의으로 進行한다는 것을 認定하는 瞬間, 空間을 左右로 揚動하는 振子와 같은 力學的 類推에 基礎를 둔 均衡概念은 維持될 수가 없다.」⁽²⁵⁾

이와 같이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不確實性의 本質과 그것이 派生하는 期待의 重要性을

地主, 資本家, 勞動者 등 行動類型을 달리하는 그룹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과 類似하다고도 볼 수 있다.

(24) J. Robinson, "What Has Become of the Keynesian Revolution?", in M. Keynes, *Essays on J.M. Keynes*, Cambridge, 1975, p. 125.

(25) *Ibid.*, p. 126.

認識하고 그것을 經濟理論의 中樞部分으로 導入한 理論이 케인즈의 經濟理論이다. 바로 이點이 케인즈理論과 古典派理論의 가장 큰 差異點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케인즈의 理論과 케인지언의 理論의 가장 큰 差異點이라고도 할 수 있다. ⁽²⁶⁾

슘페터理論에서 棲息하면서 資本主義를 움직이는 人間은 어떤 人間인가?

첫째, 그것은 均衡理論에 있어서가 아니라, 資本主義制度下에서, 다시 말해서 現代的 生產組織과 分業體制가 確立되어 있고 現代的 金融·資本市場이 있는 制度의 테두리 속에서 生活하는 人間이다. 이 點에 있어서는 케인즈理論에 있어서의 人間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슘페터理論에 있어서의 人間에는 다음의 圖式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類型이 있다.



첫째 類型의 人間은 少數의 이노베이터(企業者)라는 特殊한 類型의 사람들로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感知하지 못하는 將來에 있어서의 利潤의 可能性의 所在를感知하고, 周圍의 嫉視와 冷待를 물리치고 利潤을 實現하기 위하여 果敢히 新結合(내지 新機軸——즉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特수한 能力——이를테면 創意, 權威, 先見之明, 리더쉽 등의 資質——을 發揮하는 人間이다. 資本主義社會에는 반드시 이들 이노베이터가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利潤이라는 特殊한 報酬의 制度가 裝置되어, 항상 이노베이션에 대한 무엇보다도 強한 誘因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베이터는 한마디로 資本主義經濟를 領導하여 既存의 生產體制를 破壞하여 經濟를 發展시킨다.

둘째 類型의 人間은 「循環的 흐름」 속에 安住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既存의 慣習과 觀念에 따라 被動的으로 움직인다. 領導者인 企業者は 항상 均衡을 破壞하여 經濟을 發展시키는 데 反하여, 이들은 항상 均衡을 回復하여 經濟를 다시 「循環的 흐름」 속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들은 항상 周圍의 狀況에 스스로를 適應시키며, 被動的으로 生活함으로써 靜態的인 社會를 維持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企業者에 의한 新結合의 遂行이야말로 資本主義經濟의 動因이 된다. 슘페터는 經濟發展을 가져오는 이노베이션의 本質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26) 케인지언의 理論(이를테면 토큰의 理論)은 이 點에 있어서 케인즈의 理論보다도 新古典派의 理論과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生產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利用할 수 있는 諸物 및 諸力を 結合하는 일이다. 生產物 및 生產方法의 變更이란 이들 諸物 및 諸力의 結合을 變更하는 일이다. 舊結合으로부터 漸次로 작은 連續的인 適應을 통하여 新結合에 到達한다고 할 수 있는 限에 있어서는 확실히 變化,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成長이 存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均衡의 考察方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現象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의미하는 發展도 아니다. 以上的 경우와는 달리, 新結合이 不連續의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나타나므로 비로소 發展이라는 特有한 現象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資本主義經濟의 動因은 新結合의 遂行에 의하여 賦與된다. 新結合은 主로, 새로운 財貨의 生產, 새로운 生產方法의 導入, 새로운 販路의 開拓, 原料 및 半製品의 새로운 供給源의 獲得 및 새로운 組織의 實現 등의 다섯 가지의 領域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케인즈 理論에 있어서는 經濟主體의 期待가, 슘페터의 理論에 있어서는 企業者의 이노베이션, 經濟를 움직이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期待와 인노베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差異가 있다.

첫째, 케인즈理論에 있어서는 모든 經濟主體가 期待를 形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消費者들은 消費活動을 하는 데 있어, 모두 나름대로의 期待——즉 消費性向——를 形成하여 消費生活을 한다. 資產保存者는 各金融資產의 將來價格에 대한 期待——流動性選好——를 形成함으로써 利子率을 決定하는 데 應分의 役割을 한다. 企業은 將來에 있어서의 投資의 收益性에 관한 期待——投資의 限界效率——를 形成하여 投資量을 決定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經濟主體의 心理作用이 經濟變動의 要因을 마련하는 것으로 浮刻되고 있다.

슈페터의 理論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은 第2의 類型의 人間에 의한 間斷 없는 微細한 貯蓄의 增加나 既存의 技術의 漸進의이고 連續的인 進步에 立脚한 資本의 蓄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第1의 類型의 人間인 企業者의 이노베이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逆으로 말해, 이노베이션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者라는 特殊한 類型의 人間만이 할 수 있는 經濟活動이라는 것이 浮刻되고 있다. 케인즈의 期待는 모든 經濟主體가 形成하지만, 슘페터의 이노베이션은 企業者만이 한다. 이와 같이 슘페터의 理論은 發展을 가지고 오는 人間과 그렇지 못한 人間, 發展을 가지고 오는 行爲와 그렇지 못한 行爲를 처음부터 二元의으로 區別하고 있다.

둘째, 케인즈理論에 있어서의 經濟의 獨立變數인 消費性向, 投資의 限界效率 및 流動性選好는 모두 不確實性에 直面한 經濟主體의 心理的 作用이다. 케인즈 理論은 이와 같이 不確實性에 대한 認識과 이에 대한 經濟主體의 心理를 中心으로 展開된다.

이에 比하여 슘페터理論에 있어서는 不確實性이나 經濟主體의 心理的 作用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물론 이노베이션이 行하여지기 위하여 企業者가 利潤을 期待하여야 하고, 그 期待가 實現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不確實한 것은 틀림없으나, 슘페터의 長期的 歷史的 見地로 보면, 이노베이션이란 確實히 그리고 必然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노베이션이 있으면 항상 利潤이 있다는 것도 既定의 事實로 여겨지는 것이다. 슘페터의 理論은 個個의 企業者가 直面하는 不確實性과 期待를 重要視하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經濟의 大河와 같은 움직임으로 보아, 이노베이션은 반드시 있고, 따라서 經濟는 반드시 發展한다는 側面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3. 短期와 長期

케인즈와 슘페터의 經濟理論의 가장 큰 基本的인 差異는 케인즈의 理論은 主로 短期理論 이 많고, 또 短期理論과 長期的 비전이 混合되어 있는 데 比하여 슘페터의 理論은 徹底하게 長期理論이라는 데 있다.

케인즈의 理論은 基本적으로 短期理論이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그의 關心은 主로 經濟政策에 있었다. 그의 關心의 對象이 되는 經濟政策은 물론 短期政策만은 아니었다. 그는 많은 長期的인 問題에도 깊은 關心을 가지고 洞察力이 넘치는 많은 解決方策을 提示하였다. 例를 들어, 1920年代에 그가 摸索하였던 諸問題 가운데는 短期의인 것보다도 長期의인 것이 더 많았다. 유럽의 平和와 繁榮을 위한 對獨政策, 金本位制度의 處理問題, 金融改革의 問題 등은 모두 經濟構造내지 經濟體制의 改革에 관련되는 長期의인 問題였다. 1920年當時의 그의 著作에는 資本主義經濟의 發展과 問題點에 관한 그의 觀察이 많이 나와 있었다. 그 당시에는 短期理論으로서의 케인즈理論이라는 體系가 아직 뚜렷이 確立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따라서 上記한 바와 같은 問題에 대한 政策方向도 短期에 끗지 않게 長期의인 眼目에 立脚한 것이 많았다.

『一般理論』에 와서 短期理論으로서의 케인즈 理論의 體系가 完全히 確立되게 됨에 이르리, 理論 및 政策의 兩領域에 걸쳐, 短期와 長期의 調和내지 葛藤의 問題가 擡頭되었다는 것이 나의 觀察이다.⁽²⁷⁾ 나의 생각으로는 이 點이 케인즈理論의 弱點의 核心이며,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좀 더 자세한 說明이 필요하다.

① 우선 『一般理論』에서의 經濟理論은 短期理論이다. 『一般理論』을 要約하는 대목에서, 케인즈는 그의 理論이 「使用할 수 있는 勞動의 現存의 熟練과 量, 使用할 수 있는 設備의

(27) 특히 短期的 流動性選好理論과 長期的 流動性選好理論의 共存이 빛어내는 問題의 一端에 관하여는, 趙淳, 「케인즈의 理論과 思想에 관한 小考」,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1981, pp. 390-393 參照.

現存의 質과 量, 現存의 技術, 競爭의 程度, 消費者의 嗜好와 習慣, 千差萬別의 強度를 가진 勞動의 非效用과, 監督 및 組織活動의 非效用 및 國民所得의 分配를 결정하는 諸力を 포함하는 社會機構」를 一定한 것으로 假定한다고 했다(『一般理論』, p. 245). 이것은 그의 理論模型이 어느 面으로 보든지 短期的인 性格을 지닌 것을 闡明한 것이다.

② 그러나 『一般理論』의 經濟理論은 資本主義의 將來에 대한 長期的인 비전 위에 서 있다. 그곳에는 資本主義——적어도 自由放任下의 資本主義——는 沈滯한다는 長期的 비전이 一貫된다. 資本主義가 發達함에 따라 消費性向은 趨勢의으로 弱化되며, 投資의 限界效率은 趨勢의으로 弱化되며, 流動性選好는 趨勢의으로 強化된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 그는 資本主義經濟는 「必然的으로」沈滯한다는 말을 明示的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沈滯論의 警告는 『一般理論』의 全卷을 통한 가장 一貫性 있는 基本論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一般理論』에는 이와 같이 短期的 理論과 長期的 비전이 共存하고 있다. 短期的 理論에 의하면 有效需要는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長期的 비전에 의하면 有效需要는 趨勢의으로 不足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短期와 長期의 共存에는 어떤 論理的矛盾은 없어 보인다.

問題는 政策勸告의 內容에 있다. 만일 『一般理論』이 短期理論으로부터 短期政策方向을 導出하고 長期비전으로부터 長期政策方向을 導出하였다면 아무런 無理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政策勸告의 一切는 모두 短期理論으로부터 나오며, 長期비전은 長期政策에 대한 비전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短期的인 有效需要理論으로부터 派生되는 그의 政策勸告는 景氣의 起伏을 調節하기 위한 財政金融上의 微調整(fine-tuning)을 遂行하라는 것이 될 것이다. 즉, 景氣가 下降할 때에는 膨脹政策을 쓰고 上昇할 때에는 緊縮政策을 쓸 것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이다.

長期沈滯를 막기 위하여 케인즈는 어떤 政策勸告를 하고 있는가? 한 마디로 말하여 短期의인 膨脹政策을 長期의으로 執行할 것을 勸告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理論』의 가장 核心的인 結論 中의 하나는 「投資의 社會化(socialization of investment)」, 즉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投資를 個人에게 맡겨 두면 항상 有效需要가 不足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公共機關에게 委任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必然的으로 長期의 問題를 隨伴하지 않을 수 없다. 短期理論에 있어서는 投資의 效率, 企業活動의 性格의 變質, 所得分配, 政府 對 民間의 分業의 問題 등의 모든 問題는 *ceteris paribus* 속에 捕縛된다. 그러나, 케인즈의 勸告에 따라 投資가 社會化되면 *ceteris paribus*의 獄門이 開放되고, 短期理論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新로운 問題가 나온다. 한마디로 投資가 社會化되면, 資本主義 自體가 變質한다. 例를

들어, 投資가 社會化되는 過程에서 政府部門이 民間部門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肥大해진다. 公共投資가 增大해지면, 그 效率이 低下되지 않을 수 없다. 有效需要의 創出이라는 短期的 인 見地로 보면 民間投資와 公共投資는 同一視될 수 있을지 모르나, 經濟의 效率, 實質所得의 分配에 미치는 影響, 그리고 그 밖의 長期的인 見地로 보면 兩者는 엄청나게 다르다. 다시 말해서 「投資의 社會化」는 短期的인 解決方案이 아니라, 長期的인 解solution案인데, 케인즈는 이와 같은 長期的인 效果를 가지고 오는 政策을 短期理論으로부터 導出해 놓고도, 그 效果의 意義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거의 아무런 理論의 提示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活氣를 잃고 있는 英國經濟에 대하여는, 우선은 短期的인 問題를 解決하기만 하면 長期的인 問題는 自動的으로 解決된다고 케인즈는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經濟政策이란 어찌 經濟에 있어서나 長期的인 方向이 옳게 잡혀 있어야 短期的인 問題가 제대로 解決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케인즈와는 反對로 長期的인 方向이 옳게 서 있다면 短期的인 摩擦이나 攪亂은 經濟의 自動調節力이 解決할 것이라고 期待해도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短期模型으로부터 長期政策을 導出한다는 것은 결국 經濟의 構造的 歪曲을 造成하지 않을 수 없다.

슘페터의 理論이 技術의 變化를 中心으로 일어나는 資本主義의 過程을 다루고 있는 徹底한 長期的인 理論이라는 것은 새삼 指摘할 필요가 없다. 그는 經濟政策에 대해서는 별로 關心이 없었고,⁽²⁸⁾ 後進에 대해서도 實務와 政策에 관하여 關心을 갖지 말기를 願했다. 그의 見地로부터 보면, 政策이라는 것도 經濟體系와는 獨立되어 있는 外生的 要素가 아니라, 經濟體系 内部에 있는 内生的 要素였다. 이를테면 有效需要의 不足——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은 一時的인 現象에 不過할 것이며, 따라서 短期的인 「微調整」 따위의 政策은 不必要하고 有害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만일 케인즈가 願한대로 投資의 社會化가 있어야 한다면, 슘페터는 그것을 모두 包括하여 하나의 資本主義의 變容의 過程으로 捕捉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에는 이에 準하는 많은 分析이 行하여지고 있다.

슘페터는 그의 理論의 歷史的 長期的 性格에 관하여 『景氣循環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8) 例를 들어 『景氣循環論』의 序文에서 그는 「나는 아무런 政策勸告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計劃도 提案하지 않는다. 이런 것 以外에 關心이 없는 讀者는 이 冊을 读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理解하고자 하는 것은 歷史的 時間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이므로, 그 窮極의인 目標는 그저 歷史의 合理의인 해석 (=概念의인 해명)에 不過하다고 말해도 過言이 아니다. 本質의으로 歷史의인 性格을 가진 現象 치고 그것이 長期間에 걸쳐 考察되지 않고서, 그 自體의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期待할 수 있는 것은 없다.」⁽²⁹⁾

4. 資本主義의 成果와 命運

(1) 資本主義에 대한 비전

케인즈의 資本主義에 대한 見解는, 1920年代에 있어서는, 『貨幣改革論』 등에서 보듯이 그 安定性에 대한 疑懼는 여러 군데에 表明되어 있었으나(後述 參照), 대체로는 樂觀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28年에 「우리 孫子들의 經濟의 可能性」(『說得論文集』에 收錄)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여 100年 後(즉 約 2028年頃)의 英國의 經濟,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의 經濟에 대한 意見을 闡明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케인즈는 2028年頃에 있어서는 「重大的 戰爭과 顯著한 人口의 增加가 없을 것을 假定한다면 經濟問題는 百年 以內로 解決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解決의 실마리가 풀리리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케인즈는 資本主義가 앞으로 物質的으로 풍요한 經濟를 實現할 수 있는 可能性에 관한 한, 비교적 樂觀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有效需要의 原理를 發見한 『一般理論』에 와서는 資本主義의 將來에 대한 케인즈의 見解는前述한 바와 같은 沈滯論으로 기울어졌다. 이것은 반드시 悲觀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資本主義의 將來는 오직 人爲의인 有效需要의 創出에 의하여 保障될 수 있다는 見解에는 「우리 孫子들의 經濟의 可能性」에서 본 바와 같은 樂觀的인 餘韻은 찾기가 어렵다. 資本主義經濟는 19世紀에 있어서는 人口의 增加, 間歇的으로 일어나는 戰爭, 新開拓地의 開墾 등으로 資本의 限界效率이 比較的 높아서, 完全雇傭을 達成하기 위한 投資를 確保하기가 비교적 容易했으나, 20世紀에 와서는 資本蓄積의 增加에 따라, 資本의 限界效率이 急速히 低下함으로써 民間企業의 投資機會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輒陽의 길에 進入하기 시작하였던 英國의 經濟를 가지고 資本主義經濟 全體에 類推한 結果였다.

이에 比하여 슴페터의 資本主義의 發展의 標本은 一世紀 以上을 두고 貯蓄의 增大를 통한 漸進의인 發展을 이룩한 英國이 아니라, 企業者의 活潑한 이노베이션과 銀行의 果敢한 信用創造를 통하여, 後進國으로부터 一躍 世界의 頂上級의 工業國家가 된 獨逸과 같은 나라는 經濟發展이었다. 그의 銀行의 標本은 商業貸付(commercial loan)를 위주로 하는 英國

(29) 『景氣循環論』, 第1卷, 1939, p.220.

式銀行이 아니라, 工業에 대한 大規模 投資를 實行하기 위하여 果敢하게 信用創造를 한 獨逸式 銀行이었다.

슘페터의 資本主義經濟觀은 极히 樂觀的이었다. 進取的인 企業者의 무한한 供給, 技術發展의 무한한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그는 想定하였다. 投資機會의 消滅이라는 케인즈流의 비전은 타무니 없는杞憂인 것으로 보였다. 1930年代의 大恐慌에도 不拘하고, 그는 이것을 周波가 다른 세가지 循環의 溪谷이 偶然히 重複된 것으로 보고, 또 銀行制度의 失敗 등 資本主義의 內在的 運行과는 다른 外生的 要因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判斷하고, 「뉴딜」政策은 有害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2次大戰 동안에 많은 케인지언들(이를테면 A. 한센)이 戰後에는 有效需要의 不足으로 말미암은 經濟沈滯가 있을 것을 憂慮했지만, 슘페터는 戰後의 經濟再建의 作業은 손쉽게 이루어지고, 沈滯가 아니라 活況이 뒤따를 것으로 보았다.

(2) 資本主義經濟秩序의 安定性에 관한 見解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安定性, 經濟內에 있어서의 秩序의 強韌性에 대한 認識에도 케인즈의 비전은 슘페터와 상당한 差異가 있다. 케인즈는 1次大戰 이후의 유럽의 經濟秩序가 破壞될 憂慮에 直面하고 있는 것을 보고, 資本主義經濟의 秩序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脆弱한 基礎 위에 서 있다고 論한 바 있다. 各國에 있어서의 通貨制度의 破壞, 거기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生產施設의 瘋癲 등의 현상을 보고, 經濟秩序의 脆弱性을 痛切히 느꼈던 것이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價格機構의 作用에 대한 케인즈의 見解도 아담 스미드 以來, 經濟學者들이 傳統的으로 가지는 樂觀的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市場經濟는 완전히 움직이는 예는 드물고, 失業과 不完全雇傭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常例인 것으로 믿었다. 그는 價格·賃金이 伸縮的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失業問題는 自動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命題에는 아무런 現實的인 根據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價格과 賃金이 오히려 非伸縮的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아가서, 케인즈는 一部 重要價格, 특히 賃金이 非伸縮的인 것은 古典學派가 생각한 것처럼 經濟의 順調로운 運行에 대하여 障碍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不完全雇傭 下에서나마 經濟의 安定維持를 위하여 多幸한 것으로 본 것이다. 케인즈의 理論에는 사실 일찍부터(正確히 말하면 『貨幣論』에 있어서부터) 經濟 내에는 伸縮的價格(즉 히스가 後에 말한 flexprice)과 非伸縮價格(즉 히스가 말한 fixprice)이 共存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認識하고 있었다. 즉 財의 價格은 比較的 伸縮的인 反面, 賃金은 非伸縮의이며, 財 가운데서도 消費財 價格은 비교적 더 伸縮的인 대 반面, 資本財 價格은 비교적 덜 伸縮의이라는 것이다. 一部 價格이 非伸縮的인 것은 當然한 일이며, 또 그것이 經濟의 安定을

위해 오히려 多幸이라고 그는 믿었다.

이에 대하여 슘페터는 資本主義經濟體制는 基本的으로 대단히 安定의이라고 보았다. 資本主義에 있어서의 競爭體制는 效率을 保障하며, 創造的 破壞의 永久的인 強風이 불고 있어도 그 根底가 흔들리지 않는 鞍固한 것으로 본 것이다. 逆說的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鞍固한 基礎가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의 強風이 불 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經濟는 安定基盤 위에 成長한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

그의 理論은 發展論이나 循環論이나 월拉斯의 均衡으로부터 생각해 낸 이른바 「循環的 証明」으로부터 始發한다는 것은前述한 바와 같다. 즉 그의 見解에 의하면 各 經濟主體의 個個의 意思決定이 合하여지면 그것이 經濟와 社會의 秩序를 成立시키지만, 일단 經濟와 社會의 秩序가 成立하게 되면 그것은 各 經濟主體의 意思決定의 領域을 크게 制限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經濟主體들은 外見上으로는 經濟生活에 있어서의 意思決定의 自由를 완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自由의 領域은 심히 限定되어 있다고 보았다.

슈페터의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에는 資本主義經濟의 產業構造의 變化와 政治・社會에 있어서 構築된 安定裝置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그의 見解가 많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產業構造의 變化에 있어서는 그는 獨寡占이 臺頭하는 것은 資本主義의 競爭 및 資本主義의 安定裝置의 一種이라고 본 것이라든지, 資本主義國家에서 부르조아階級과 옛날의 封建的인 統治者의 共存 및 分業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資本主義經濟의 安定性을 保障하는 하나의 要因이라고 본 것은, 그가 資本主義의 安定性에 대하여 깊은 「信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3) 資本主義의 命運

周知하는 바와 같이 슘페터는 資本主義社會는 끝내 支撐할 수 없고 마침내는 社會主義에 의하여 代替된다고 보았다. 이 點에 있어서는 적어도 結論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그것과 같다. 슘페터가 資本主義는 드디어 社會主義에 의하여 代替된다고 생각한 理由는 다음과 같이闡明되었다(『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 pp. 417-418). ① 革新이 日常化되고, 自動化되고, 組織化된 結果, 經濟發展은 말하자면 官僚機構에 있어서의 專門家가 行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革新을 行하는 企業者의 機能과 그의 社會的 地位가 袭失된다. ② 合理性이 進展되기 때문에, 道德, 規律, 慣習, 制度面에서 資本主義를 支撐하던 前資本主義의 要素가 袭失된다. 이를테면 부르조아지와 協力하여 資本主義社會의 統治를 擔當하던 階級을 没落시킨다. ③ 資本主義制度에 대하여 批判的인 知識階級이 出現하여 資本主義의 防

壁을 破壞한다. ④ 資本主義의 價值觀이 磨耗되고, 平等化·社會保障·政府介入·餘暇 등을 選好하는 風潮가 造成되어, 이것이 資本主義의 自己崩壞를 가지고 온다.

슘페터가 列舉한 資本主義崩壞要因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檢討한다는 것은 本稿의 範圍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그의 主張은 많은洞察力에 의하여 支撐되고 있기는 하나, 上記의 主張의 하나 하나에 꼭 說得力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例를 들어 이노베이션의 制度化·自動化가 왜 꼭 資本主義의 崩壞를 가지고 오는 一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說得力 있는 說明이 없다. 또 合理主義의 普遍化가 이루어지면 슘페터가 말한 바와 같이 既存의 統治機構나 人物 등에 대한 浪漫的인 尊敬心이나 依存心이 磨耗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認定할 수 있으나, 이것이 꼭 社會主義를 導入하는 데 대한 充分條件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知識階級은 항상 資本主義體制에 대하여 批判的이라는 생각에도 說得力이 없다. 끝으로 制度와 慣習 등이 競爭的 資本主義時代의 그것으로부터 점차 變化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도 꼭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論理는 成立할 수가 없다.

슘페터의 이와 같은 社會主義移行論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고, 오늘의 時點에 서서 볼 때 說得力은 반드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事項은 大部分의 오늘날의 先進資本主義에 있어서의 오늘의 樣相은 슘페터의 見地로 보면 社會主義의in側面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다.

케인즈에게는 資本主義經濟가 社會主義로 移行한다는 등의 觀念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投資의 社會化」를 主張하면서도 이것이 社會主義의 前奏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케인즈에 있어서는 歷史發展이라든가 社會發展이라든가 하는 表現이 含蓄하듯이, 歷史나 社會가 어떤 法則性을 具有하는가 發展의 길을 밟는다는 思想은 없다.一般的으로 英國의 經濟學者에게는 資本主義의 先頭에 서 있는 英國에 있어서는 資本主義가 發展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며, 그것이 어떤 必然性내지 法則性을 따면서 發展한다는 思想은 찾아 보기 힘든 것이다. 發展에 대한 思想은 獨逸과 같은 後進國에서 생기기 쉬운 思想인 것이다.

(4) 技術進步에 대한 見解

케인즈는 技術進步와 投資의 관계에 대하여 끝내 충분한 認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點에 있어서는 그의 見解는 有效需要理論의 概念의 缺如에 關하여 그가 痛烈히 非難한 리카도의 吉典派理論의 그것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그는 資本의 蓄積이 投資의 限界效率을 低下시키고 있다고 指摘하는 대목에서, 앞으로 約 30年 동안當時의 投資率대로 投資가 이루어진다면 投資의 限界效率은 一世代 以內에 零으로 低落하리라고 展望하였

다. 만약, 이와 같이 投資의 限界效率이 零이 된 狀態에서 經濟가 그대로 放置된다면 어령 게 될 것인가? 投資의 限界效率이 零이 된다면 新投資는 없어지고, 經濟는 窮極的으로는 吉典學派의 이론 바 「長期的 定常狀態」로 進入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와 같이 오직 資本의 蓄積만 重要視하고 技術進步와 이노베이션의 役割을 等閑視하였다는 點에 있어서는 리카도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技術進步의 意義와 그것이 經濟發展에 미치는 役割에 대하여 充分한 認識을 한 經濟學者는 드물다. 이것은 收穫遞減의 法則을 強調하는 英國古典派의 思考가 不知不識間に 傳授된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어쨌든 技術進步의 役割을 無視하였다는 點에 있어서는 케인즈도 例外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古今의 經濟學者 中에서 技術進步의 經濟的 意義에 대하여 가장 뚜렷한 認識을 가진 學者는 마르크스와 슘페터였다. 특히 슘페터는 資本主義經濟發展에 대한 이노베이션의 意味를 누구보다도 잘 說明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그의 理論의 骨子를 다음의 두 가지 命題로 集約하고자 한다. 첫째는 보다 物的인 側面에 관한 命題로서, 經濟發展의 動因은 技術發展을 포함하는 이노베이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命題이며, 둘째는 보다 社會的인 側面에 관한 命題로서, 오직 資本主義經濟體制 下에서만, 不斷히 이노베이션을 發生시킬 수 있다는 命題이다.

技術의 發展은, 이를테면 馬車에 의한 交通의 시스템 대신에 鐵道에 의한 시스템을, 鐵道에 의한 시스템 대신에 航空에 의한 시스템을 導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既存의 生產函數 대신에 새로운 生產函數를 代替하고, 生產要素을 既存의 用途로부터 빼내서 새로운 用途로 投入하게 하는 것이다. 經濟發展은 이와 같이 既存의 生產시스템이 破壞되고 새로운 生產 시스템이 創造되는 過程(즉 創造的 破壞의 過程)에서 이루어진다.

둘째의 命題은 오직 資本主義經濟體制만이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는 命題이니, 거기에 는 利潤이라는 特殊한 報酬의 制度가 있기 때문이다. 오직 資本主義만이 이노베이터에 대하여 治足한 報酬를 支拂한다. 利潤이라는 報酬가 없는 體制下에서는 이노베이션이 自生的으로 나올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노베이션이 없는 資本主義經濟는 있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發展 없는 資本主義經濟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슘페터理論의 基本的 側面이다. 極端의으로 말하면 이노베이션이란, 오직 資本主義 下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듯이 資本主義의 成果와 그 命運에 대한 케인즈와 슘페터의 비전에는 서로

樂觀과 非觀이 엇갈리고 있어, 兩人의 見解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要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一般化하는 느낌은 있으나 이 問題에 관한 兩學者의 見解의 差異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① 케인즈는 資本主義의 成果(performance)에 대하여는 悲觀的이었으나, 그 命運에 대하여는 樂觀的이었다. 즉 그는 資本主義——自由放任 下의——는 有效需要의 不足으로 沈滯를 免할 수 없으나, 適宜한 政策을 쓰면, 資本主義體制는 維持될 수 있다고 믿었다.

② 슘페터는 資本主義의 成果에 대하여는 樂觀的이었으나, 그 命運에 대하여는 悲觀的이었다. 즉 그는 資本主義의 生產力의 活力은 앞으로도 維持될 수 있으나, 그 成功의 過程에서 資本主義는 스스로를 破壞하는 要因을 保育함으로써 마침내 社會主義에 의하여 承繼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③ 「投資의 社會化」에 의하여 維持되는 케인즈의 未來의 「資本主義」는 슘페터의 「社會主義」와 共通點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價值觀 및 社會哲學

케인즈는 資本主義經濟를 不安定的으로 보았다는 點과, 人間의 行爲—— 특히 不確實性에直面한 人間의 行爲——에는 不合理性에 많다고 보았다 함은前述한 바와 같다. 사실, 그는 知天命의 年齡을 지날 무렵부터 人間의 文明 自體에는 不安定的 要素가 많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維持하고 保存하는 것은 少數의 卓越한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었다. 「文明이란, 極少數의 사람의 人格과 意思에 의하여 構築된, 그리고 巧妙하게 納得되고 狹猾하게 保存된 規則이나 因襲에 의하여 겨우 維持되는 淺薄하고 信憑性 없는 外皮」⁽³⁰⁾라고 그는 말한 바 있다. 이것을 逆으로 말하면 그 얇은 外皮나마 지금까지 維持해온 것은 少數의 엘리트라는 것이 된다. 「[不合理한] 人間의 生活에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成就한 先人們의 非常한 業績이나, 그 秩序를 保護하기 위하여 創案한 精巧한 [制度的] 骨格」⁽³¹⁾은 尊重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이것을 또 逆으로 말한다면, 이와 같은 文明을 保護하고 發展시키는 責任은 少數의 知性的 엘리트에 있다는 것이 된다. 知性人이 그 責任을 遂行하기 위하여 無私公正한 立場에서 事物을 觀照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觀照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벤담的인 功利主義를 버려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少時로부터 벤담主義를 排

(30) 『人物評傳』(케인즈全集, 第10卷), p. 447.

(31) 上揭書.

擊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斷言한 바 있다.

「…우리들⁽³²⁾은 우리들의 世代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우리들만이, 벤담主義의 傳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者에 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에 와서 나는 벤담主義의 傳統이 야말로, 近代文明의 内部를 좀 먹고, 그 現在의 道德的 荒廢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하는 구더기라고 생각한다. …사실인 즉, 世間 一般의 理想의 資質을 破壞하고 있었던 것은 經濟的 基準의 過大評價에 基礎를 둔 벤담主義의 功利計算이었다.」⁽³³⁾

그는 資本主義에는 많은 可憎스러운 側面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英國社會 特有의 不平等性, 利子所得者의 墮落한 無爲徒食 등이 그의 嫌惡의 對象이었다.⁽³⁴⁾

그는 英國社會가 그처럼 富強한——비록 좋지 못한 側面은 있으나——나라가 된 것은 少數의 知性的 엘리트 德澤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英國社會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自己自身과 같은 知性人의 責任이라고 믿었다. 해로드는 이러한 케인즈의 認識을 케인즈가 生誕하고 成長한 住所의 名稱을 따서 「하비街(Harvey Road)의 既定觀念」이라 하였지만, 사실 케인즈는 英國의 方向은 低質의 人間이 모여 있는 政府關係者가 아니라, 그 自身과 같은 知的 엘리트의 思考나 判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이상에서 要約한 그의 文明觀, 歷史觀, 人間觀 및 價值觀이 옳다면, 그것은 곧 케인즈가 끊임 없는 改良主義者(reformist)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理論이나 事物에 대한 認識에는 一貫性이 없는 경우도 많고 여러 번 見解를 바꾼 경우도 있으나, 改良主義者的인 基本立場은一生을 통하여 놀랄만치 一貫性을 유지하였다. 理論을 위한 理論이 아니라 政策을 위한 理論, 說得을 위한 論說, 그리고 그의 그처럼 多樣한 社會活動 등은 모두 그의 「하비街의 觀念」을 反映하는 것이다.

그는 以上과 같이 知性 엘리트의 責任에 대하여는 굳은 信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自身의 能力——大衆이나 政府를 說得하는 能力——에 대하여 自信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의 論說과 行動의 全體로 보아, 그러한 自信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완전한 自信이 없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生涯였다. 『說得論文集』(1931年)의 序文의 劈頭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이 무엇보다도 雄辯으로 그의 心境을 말해 주는 것 같아 생각된다.

『여기에 收錄한 것은 12년에 걸친 不吉한 時節——일찌기 한번도 事態의 推移에 대하여 時宜에 適

(32) 青壯年 時節의 케인즈의 交友를 말함.

(33) 上揭書, pp. 445-446.

(34) 一生을 통하여 低利子率을 主張한 裏面에는 이러한 理由도 強하다.

合한 影響을 주지 못한 채 끝나버린, 저 카산드라(Cassandra)와도 같은 凶事를 告하는 一豫言者의 외침이다. 이 책의 標題를 『豫言・說得論文集』이라고 해도 無妨했을 것이다. 不幸하게도 보다 많은 成功을 거둔 것은, 說得이 아니고豫言 쪽이었기 때문이다. …」

사실, 그의 說得은, 一生을 통하여——아마 死後에 있어서도——한 번도 그가 뜻한 대로 採擇된 적이 없었다. 여기에 華麗한 活動과 壓世의 名聲에도 不拘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그의 容貌와 生涯의 原因의 一端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끝으로 케인즈의 價值觀에 관하여 한가지 檢討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果然 그가 斷言한 대로 벤담主義를 克服했느냐의 問題이다. 나는 이 물음에 대하여 꼭 肯定的인 대답이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케인즈는 아마도 벤담主義의 快樂主義의 部分은 克服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生涯와 經濟, 그리고 經濟學에 대한 態度는, 벤담主義를 聯想하게 하는 여러가지 側面을 發見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에 關하여 詳論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點을 例示하고자 한다. 첫째 그의 理論의 展開가 徹底하게 現實의이고 政策을 위한 것이었다는 點, 둘째 어떤 手段을 쓰더라도 이를테면 地面에 구멍을 팠다가 다시 메우는 作業의 反復을 하더라도 完全雇傭을 達成하면 된다는 一種의 結果主義, 세째 經濟란 理想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手段에 不過하는 생각, 그리고 經濟學者란 마치 齒科醫師처럼 卑近하고 有用한 存在가 되는 것이 最良이라는 觀念 등을 모두 그의 思考의 밑바탕에 어느 정도의 功利主義의 側面이 있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모든 面에 있어 슘페터는 케인즈에 比하여 훨씬 덜 복잡하다. 價值觀이나 人間觀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된다.

슈페터는前述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經濟를 不安定의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人間의 文明一般에 관하여도 케인즈처럼 不安定의이고 信憑性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資本主義는 單純한 하나의 經濟制度가 아니라, 하나의 文明——合理性을追求하고, 不平等에 立脚한 하나의 文明——이라고 보고, 現代의 모든 制度와 慣習이 다 이러한 文明의 產物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文明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變化할 수도 없고 오직 徐徐히 變遷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知性的 엘리트라고 해서 그 方向을 一朝一夕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資本主義가 社會主義로 넘어가는 것은 必然이라고 보았지만, 그 過程을 考察해 보면 一世紀도 오히려 短期라고 보았다. 이러한 歷史觀, 經濟觀으로 미루어 본다면, 슘페터는 自身의 責任이 무엇이라고 느꼈든지 간에, 「하비街의 觀念」과 같은

價值觀은 가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케인즈는 經濟・社會의 改良主義者였지만, 슘페터는 改良主義者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自由放任主義者도 아니었고 資本主義의 生產力과 效率의 維持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政府의 政策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政策方向은, 主로 長期的인 政策勸告를 보면, 놀랄만치 오늘날의 이른바 供給側 經濟學의 觀念과 類似하다. ⁽³⁵⁾

슈페터는 資本主義經濟는 그 存續을 위하여 國民經濟의 總生產의 不斷한 增加가 必要하고 또 可能한 것으로 보았다. 그의 眼目으로는 獨占은 一種의 競爭의 形態이며, 따라서 그 것을 防止하기 위한立法은 有害하다고 보았다. 케인즈도 어느 정도의 不平等은 不可避하고 또 必要하다고 보았지만, 슘페터는 케인즈 以上으로 不平等이 容認되어야 할 것으로 믿었다.

資本主義經濟가 順調로운 發展을 하기 위하여는 슘페터는 다음과 같은 政策方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企業活動에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租稅制度를 改革하여야 한다. 그 内容은 法人利潤의 二重課稅를 除去하고 間接稅의 比重을 높히고 相續稅率을 緩和하는 것이다. 둘째, 政府支出計劃에 效率性이 達成되어야 하며, 失業手當 등은 賃金率을 훨씬 不廻하는 水準에서 維持되어야 한다. 세째, 諸價格, 利子率 및 賃金 등의 決定에 대하여 政治의 干與가 排除되어야 한다. 네째, 비록 매우 人氣가 나쁜 方法을 쓰더라도 인플레이션은 抑制되어야 한다. ⁽³⁶⁾ 슘페터야말로 真正한 의미에 있어서의 供給側 經濟學者 ——그는 勿論 이것만은 아니었지만——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V. 結　　語

以上으로 盲人の 寓話를 방불케 하는 叙述은 끝났다. 거기에는 분명히 理解의不足과, 判斷의 未熟, 그리고 兩大家의 著作의 全體를 通讀하고 玩味하지 못한 面에서 오는 誤謬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 叙述의 内容을 여기에서 要約할 필요는 물론 없다. 다만, 叙述의 過程에서 떠 오른 몇 가지 感想을 摘記하면서 本稿를 끝맺고자 한다.

① 近來에 와서 케인즈 經濟學은 이제는 無用한 것이 되었고 케인즈는 이제는 「죽었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 70年代 이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面하여 케인지언의 處方이 效驗을 잊게 되자, 이러한 評을 듣게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35) 現今의 供給側 經濟學者가 이것을 認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36) Arthur Smithies, "Schumpeter and Keynes," in *Schumpeter, Social Scientist, op. cit.*, p. 141.

확실히 케인즈流의 短期模型이 주어졌다고 假定한 여러 條件이 激變하는 現今의 世界에 있어서는 그 現實適合性을 維持할 도리는 없다. 또 本文에서 指摘하기도 했지만, 『一般理論』이 含蓄하는 政策이 長期的인 問題에 適用될 경우, 必然的으로 矛盾을 露呈하게 된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케인즈의 短期模型의 現實適合性이 줄어 들었다고 해서 케인즈의 理論이 不必要하게 되었다거나, 케인즈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要는 經濟理論의 生命은 形式的인 模型의 現實適合性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理論으로 誘導된 思考의 方向과 內容에 있는 것이다. 『一般理論』의 前後를 莫論하고 케인즈가 展開한 思考에는 後學을 啓發하는 많은 要素가 있다. 이러한 要素가 豐富한 이상, 케인즈의 經濟學은 그 有用性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케인즈에 대한 理解는 經濟에 대한 우리의 理解를 輒선 깊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케인즈 經濟學은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② 그동안 지나치게 冷待되어 온 슘페터의 學說은 최근에 와서 다시 어느 정도의 脚光을 받게 된 것 같다. 70年代 이후의 長波의인 景氣變動, 技術發展의 消長, 資本主義의 變貌 등은, 그동안 거의 退化된 슘페터의in 長期的 視野의 復活을 切實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重要한 것은 슘페터自身이 指摘한 바와 같이, 結論 그 自體가 아니라, 그 結論에 이르기까지의 思考의 內容인 것이다. 資本主義에 대한 슘페터의 비견과 理論은 今世紀에 있어서의 經濟學界가 收穫한 가장 훌륭한 結實 中의 하나이다. 슘페터를 알면, 資本主義에 대한 우리의 理解가 輒선 더 깊어진다. 아니, 슘페터를 모르고서는 資本主義에 대한 우리의 理解가 도저히 깊어질 수가 없다.

③ 兩學者는 비록 서로 많은 差異가 있으나, 모두 19世紀 末에서부터 20世紀 初의 유럽 學界의 產物이라는 點에서 共通點이 있다. 그 당시의 大學과 學風, 그리고 社會雰圍氣가 이들의 知的인 成就를 可能하게 한 것이다. 20世紀 後半의 大學은 이미 百年前의 大學과 다르고, 大學週邊의 學風과 教育方法, 그리고 學者에 대한 需要의 패턴 등이 크게 달라졌다. 學者가 量產되고, 學問은 大衆化되었다. 이러한 趨勢 속에서 經濟理論은 專門化, 技術化의 길을一方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傾向의 長點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雰圍氣 속에서는 兩大家와 같은 學者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20世紀 後半에 와서는 白鯨과 白象은 유럽에서도 거의 滅種狀態에 있다.

④ 現代의 經濟問題는 날이 갈수록 社會問題, 政治問題 등과 더 많은 關聯을 가지게 되

었다. 지금의 世界에 있어서는 經濟理論만 가지고 解決할 수 있는 經濟問題는 거의 없다. 모든 經濟問題는 많은 經濟學者에 의하여 「經濟外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여러가지 要素와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學者가 直面하는 問題는 날이 갈수록 더 넓은 視野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學界의 現實은 어떤가? 經濟學은 점점 더 출아치고 있다. 專門分野는 점점 더 細分되어 가고 있고, 이에 比例하여 그 以外의 分野에 대한 無知와 無關心이擴大되고 있다. 여기에 現代經濟學의, 아니, 어쩌면 現代의 모든 學問의, 苦惱의 核心이 있다고 생각된다.

⑤ 經濟學의 危機說이 나온지 오래다. 그 危機의 性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解消되기 위하여는 결국 第2의 케인즈와 第2의 슘페터가 出現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經濟世界가 第1의 케인즈와 第1의 슘페터를 無視하는限에 있어서는到底히 出現하기가 힘들 것이다. 前者は 後者の 成就의 基盤이 없이는 出現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Keynes, J.M.,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Macmillan for the Royal Economic Society, London, 1971~.
- Vol. II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1919).
- Vol. III *A Revision of the Treaty* (1922).
- Vol. IV *A Tract on Monetary Reform* (1923).
- Vol. V *A Treatise on Money: The Pure Theory of Money* (1930).
- Vol. VI *A Treatise on Money: The Applied Theory of Money* (1930).
- Vol. VII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Vol. IX *Essays in Persuasion* (1931).
- Vol. X *Essays in Biography* (1933).
- Vol. XXVIII *Social, Political and Literary Writings*.
- Schumpeter, J.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36.
- Schumpeter, J.A.,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 McGraw-Hill, New York, 1939.

- Schumpeter, J.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rev. ed., Harper, New York, 1947.
- Schumpeter, J.A., *Ten Great Economists: From Marx to Keyn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1.
- シュムペーター, J.A., 『理論經濟學の本質と主要內容』(木村健康・安井琢磨 譯), 日本評論社, 1936.
- シュムペーター, J.A., 『經濟學史』(中山伊知郎・東烟精一 譯), 岩波書店, 1980.
- シュムペーター, J.A., 『租稅國家の危機』(木村元一・小谷義次 譯), 岩波書店, 1983.